

# 경기 솔솔~ 독서바람

세상과 通하며, 미래路 함께 가는 독서

현장에서 소리 없이 독서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실천가들의 이야기를 담아 현장이 현장을 위한 자발적인  
 독서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크고 작은 바람이 모여  
 독서 싹을 틔우고 열매 맺는 과정적 독서성장을 함께하는  
 이야기마당이며 이러한 이야기가 바람타고 멀리멀리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 -



## 목 차

● 책으로 여는 미래	
- [책읽는학교] 세상을 보는 힘, 문해력 학교 <가평초등학교>	03
- [책읽는학교] 책과 함께 성장하는 학교 <풍양중학교>	06
● 생각이 크는 인문학	
- 인문학 프로그램 연계 '영화 속에 피어난 꼬마 작가' <고양 문화초등학교>	11
- 배움이 삶이 되는 중3 전환기 인문학 프로그램 <장성중학교>	14
● 세상과 소통하는 글쓰기	
- [학생책쓰기] 글로 표현하는 나의 세상 <감일백제중학교>	18
- [학생책쓰기] 포천고 학생 작가들 <포천고등학교>	21
● 예술-독서 융합 프로젝트	
- 도서관 옆 미술관 프로젝트 <서경초등학교>	24
- 초·중·고 연계 예술-독서 융합 도레미 프로젝트 <금릉초등학교>	27

책으로 꿈을 키우고 삶의 지평을 넓히는 독서인문교육 사례를 공유해 주신 가평초, 금릉초, 문화초, 서경초, 감일백제중, 장성중, 풍양중, 포천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 예술·독서팀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독서인문교육 사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책으로 여는 미래

책을 읽는다는 것은  
많은 경우 자신의 미래를 만든다는 것과 같은 뜻이다.  
- 에머슨 -



## 책으로 여는 미래

가평초등학교

# ‘세상을 보는 힘, 문해력 학교’



## 기획 의도

본교는 2023학년도 <책읽는학교>를 운영하며, 학교도서관이 학교의 중심이 되어 학교와 가정의 문해 환경 조성하고자 하였다. 무엇보다 도서관 문해 프로그램을 통해 성공적인 읽기 기회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활동에 중점을 두었고, 이러한 활동은 학생들의 읽기·쓰기 능력 및 사고력 증진에 작은 보탬이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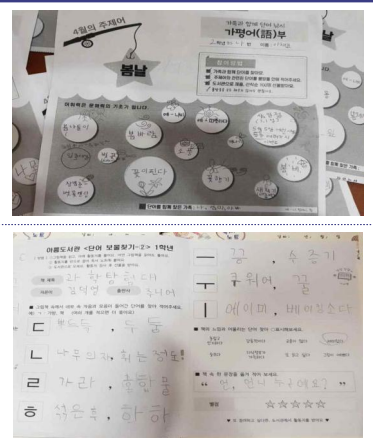
## 활동내용 1 책 읽는 교실 문해 환경 지원사업

학교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각 학급으로 문해력 지원 꾸러미를 제공하였다. 꾸러미 내용은 문해 관련 도서, 책 거치대, 월별 독서 정보 안내 등으로 구성된다. 1~2학년과 특수반은 한글 가나다 요술 책 및 아하 한글 시리즈를, 3~6학년은 365 어휘 일력이 제공되었다. 월별 독서 정보는 독서전략을 이미지로 개발한 안내문과 주제별 추천 도서 안내문으로 구성되었으며, 도서관 소식지와 함께 엮어 제공하였다. 주제별 추천 도서 자료는 총 10개의 주제가 개발되었으며 경기도 사서 교사 모임 <그림책나누는사이> 공식 블로그를 통해 다운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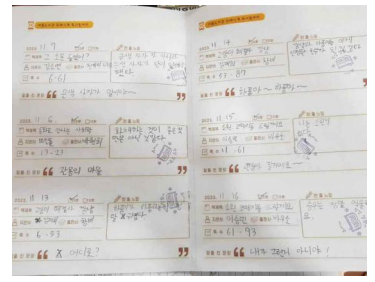
## 활동내용 2 문해력 독서 행사

학생들의 어휘력 증진과 읽기 활동 지원을 위하여 문해력을 주제로 교육과정 연계 독서 행사를 실시하였다. <가평어부>라는 이름의 행사는 월별 대표 주제어를 제시하고 관련 어휘를 알아보는 활동으로 친구나 가족과 함께 참여도 가능하다. <단어 보물찾기>는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된 행사로, 그림책 속에서 한글 자음과 모음을 찾아 해당 단어를 정리하는 활동지를 개발하여 이용하였다. <여름아 반가워>는 2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여름 그림책 세트를 준비하여 도서관에 전시 및 교실로 빌려드리는 준비 단계가 필요하다. 학생들은 주제별 그림책을 읽으며 여름 관련 단어를 확인하고 읽은 느낌을 정리하는 활동지를 통해 참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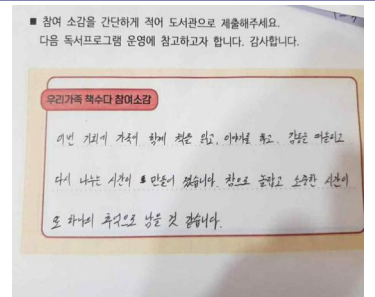
### 활동내용 3 독서 동아리

<북돋움>과 <모래시계> 독서동아리는 3~6학년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각각 1학기과 2학기에 실시된 독서프로그램이다. <북돋움>은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주 5회 어휘 퀴즈를 푸는 독서 동아리로, 고학년에 배부된 도서 365 어휘달력을 활용하여 퀴즈 활동지를 만들어 제공하였다. 문제는 매일 바뀌며 하루 6~8개의 어휘를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활동지를 푼 후 문구 선물을 받는다. 희망자 70명으로 구성된 모임이다. <모래시계>는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모래시계를 사용하여 매일 10분 책 읽기 활동을 실천하는 독서동아리로, 3~6학년 중 희망자 3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다. 개별 독서 시간이 끝난 후 활동지에 한 줄 느낌과 발췌문 적기 활동으로 마무리하며 문구 선물을 받는다. 모래시계 독서동아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독성이 높은 도서 선정이 중요하다. 도서의 최종 선택은 학생이 하되, 문학과성과 가독성이 모두 훌륭한 도서 바구니를 준비하여 고르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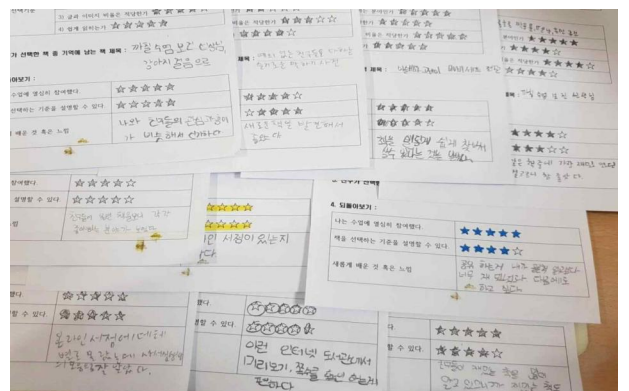
### 활동내용 4 우리 가족 책수다

가족 독서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본 프로그램은 가족이 모여 책을 읽고 배부한 활동지에 의견을 기록하는 활동을 실시한다. 가족의 의미와 소중함을 떠올릴 수 있는 도서 2종을 선정하여 활동지와 함께 제공한다. 자녀의 이름에 담긴 뜻, 우리 집에서만 사용하는 비밀 언어 찾기 등의 활동을 통해 책에 관련된 대화를 가족과 함께 나누는 경험을 할 수 있다. 1~6학년 중 희망 가족 74명 52가정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으며, 참여한 보호자 분들의 감동적인 피드백이 인상 깊은 프로그램이었다.



### 활동내용 5 도서관 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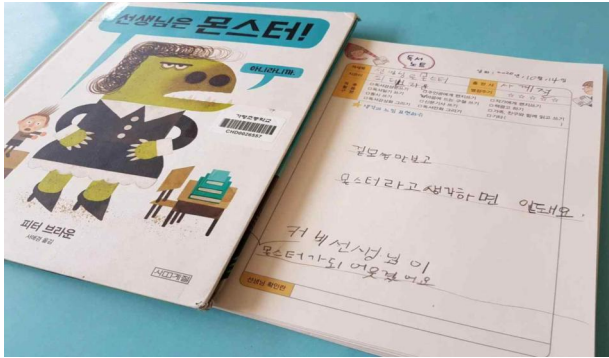
학교 자율교육과정 및 국어시간을 활용하여 사서교사 단독수업을 실시하였다. 수업 주제는 독서교육, 정보활용교육, 미디어리터러시 등을 담고 있으며 학년별 교육과정에 맞게 학습 내용이 구성되었다. 1학년 23차시, 2학년 15차시, 4~6학년 4차시를 실시하였다.





## 활동내용 6 한글 읽는 슈퍼거북

느린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문해 지도 프로그램이다. 느린 학습자 4학년 2명을 대상으로 3월~12월 방과 후 주 4회 문해 지도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생활문 쓰기, 그림책 읽기, 낭독, 한글 음가별 발음 연습, 어휘 공부, 작업기억 늘리기, 책 만들기 등으로 구성하였다. 학교 안에서 소외 받는 느린 학습자에 대한 공교육의 고민이 좀 더 깊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운영한 프로그램이다.



## 함께 나누는 이야기

도서관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으며 모든 이들이 평등하게 존중받을 수 있는 귀한 공간이다. 성적, 지능, 가정환경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읽기 경험을 제공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 학교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읽기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노력하였다. 아이들의 마음에 책과 도서관을 담은 작은 씨앗이 심어졌기를 소망한다.

- 가평초등학교 사서교사 정재연 -



## 책으로 여는 미래

풍양중학교

# ‘책과 함께 성장하는 학교’



## 기획 의도

풍양중학교는 경기도 북부 외곽 진접읍에 위치, 학생 수가 약 1,187명으로 39학급인 과밀학급, 사서교사가 배치된지 3년 6개월, 2층 별관 끝에 위치해서 학생들이 찾아오기 힘들고, 학생 수에 비해 도서관이 너무 작고, 장서의 수도 부족하지만, 독서교육이 노력중점 사업이었습니다. 3년 동안 꾸준히 도서관 독서교육을 진행 및 로드맵을 만들면서 2022년, 2023년 <책 읽는 학교> 중심교로 지정되어 학교독서교육활성화 기반을 갖춘 중학교입니다. 사서교사 단독 수업과 교과 및 자유학년제와 연계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진행 하여 학생당 최소 3권 이상 정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교행사와 연계한 도서관 행사는 도서부 및 독서동아리 학생들이 주도하여 모든 학생들에게 도서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중학교에 처음 입학하는 1학년은 도서관이 어색하지만 재미있고 신기한 곳이고 2, 3학년은 도서관은 자주 오는 편안한 공간이 되면서 도서는 평생친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독서가 초등학교에서 끝나지 않고 정서적으로 중요한 사춘기 중학생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 활동내용 1 교육과정 전반에 걸친 독서교육 및 독서문화 정착

### 1. 한 학기 한권 읽기 수업(국어)

- 전교생 1학기 5차시, 2학기 5차시, 누계 11,520명
- 도서를 정독 후 활동지, 수행평가, 뉴스 만들기, 독서신문, 북트레일러 만들기 등 활동

### 2. 교육과정 재구성 독서 수업

- 수학 : 수학 도서 읽고 수행평가 실시 (2학년 3차시, 누계 1,890명)
- 중국어 : 중국 도서 읽고 중국문화 보고서 만들기, (2학년 4차시, 누계 792명)
- 특별반 그림책 읽고 독후활동 수업(6차시, 누계 48명)
- 과학교과 힘에 대한 관련 단원 독서 수업(1학년 3차시, 누계 1,188명)
- 진료: 자기개발도서 읽고 로드맵 작성하기(1학년 2차시, 누계 792명)

### 3. 자유학년제 독서 수업

- <인문독서>동아리: 갈매기의 꿈, 흑설 공주 이야기 등 책 읽고 퀴즈, 표지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함. (1학년 17차시, 누계 561명)
- <생각하는 십대> 주제선택 : 책 읽고 신문, 슈링클스 등 만들기(2학년 33차시, 누계 1,683명)
- <책으로 만나는 영어세상>동아리 : 영어도서 읽고 단어퀴즈, 영화 보고 대본 연습 후 발표 등 (2학년 17차시, 누계 561명)

- <나만의 책 만들기>동아리: 자신이 좋아하는 도서를 선정 후 주제 및 글쓰기 (2학년 17차시, 누계 561명)
- <지구 쫓 살리는 중> 주제선택: 책 읽고 활동지, 인포그래픽, 골든벨, 토론, 작가와의 만남 등 활동 (1학년 17차시, 누계 561명)
- <미술을 읽고 책을 그리다>예술체육: 그림책을 읽고 화가 작품 만들기 (1학년33차시, 누계 1,683명)
- <뉴스Talk>주제선택 : 광고, 뉴스 등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 (1학년 17차시, 누계 561명)
- <책으로 만나는 예술>동아리 : 음악 도서 읽고 신문 만들기 (2학년 17차시, 누계 952명)
- <영어스토리북 읽기>주제선택 : 영어그림책 읽고 다양한 활동(1학년 17차시, 누계 947명)
- <독서로 깨우는 문해력>교과 보충 : 책 한권을 정도 후 토의(10차시, 누계 70명)
- 사회: 여행 도서에서 지도 찾아 여행하기(1학년 2차시, 누계 792명)
- <독서코칭>교과보충 : 성취 및 효능감 향상을 위한 독서 심리(6명 20차시, 누계 120명)
- 방과 후 독서토론 : 책 읽고 토론 및 입론서 작성(1,2,3팀 60차시, 누계 360명)

#### 4. 융합 독서 수업

- 국어+한문+독서 : 고전 읽고 한자 및 뒷이야기 쓰기 수행평가 (3학년 1차시, 누계 462명)
- 국어+음악+독서 : 랩 도서 읽고 스스로 가사 쓰고 랩 만들기(1학년 7차시, 누계 2,772명)

#### 5. 자유 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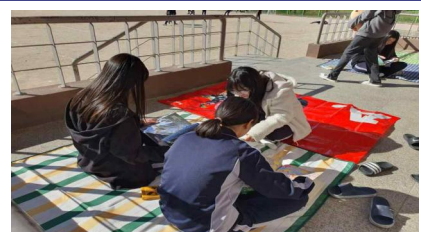
- 1학년 12반, 1학년 사회, 2학년 국어, 2학년 문화 체험 동아리, 2학년 과학 책읽기(누계 462명)

처음 독서수업을 진행 할 경우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았지만 사서교사와의 협력을 통해 교과 재구성 하여 계획서를 만들고 독서 수업을 하면 다음해에도 계속 유지 하여 수업 하는 방식으로 독서 수업이 활성화 되었습니다. 매년 독서 하는 교과가 늘어나면서 독서수업이 구축된 교과는 도서지원 처럼 간단하게 수업 지원을 하고 새로 하는 독서수업만 계획 및 수업을 같이 하면서 중학생에게 필요한 문해력 향상, 심리적 안정,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 등을 향상 시켰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서 교사 단독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교과 선생님과 논의 후 이루어지는 부분이며 학교의 특성에 맞게 질적 독서 수업을 진행 할 수 있었습니다.



시기	행사명	참가인원	내용
상시	책읽어주는 풍양이들	589명	○ 진접도서관에 매달 한번 율동, 동화구연, 독후활동 ○ 점심시간 도래와 함께 책읽기 운영
3.28~4.5,	앞서가는 풍양! 세계책의 날	358명	○ 책표지로 책갈피 만들기, 저작권 뱃지 만들기, 대출 후 볼링 맞추기, EveryBook20 감상문 쓰기
5.10~5.24,	5월 인수분해 하자	441명	○ 인수분해의 뜻, 레진 만들기, 신간 제목 매칭게임, 앞 서가는 호국퀴즈 맞추기, 청소년의 날 기념
7.10,	작가와의 만남 -이희영 작가-	65명	○ 3학년 1학기말 행사로 3학년 모두 책을 읽고 표지 그리기 대회 진행(924명)
7.19.~7.20.	북아띠 연합독서교실	40명	○ 율동주와 관련된 시집을 읽고 퀴즈 및 시화공모전, 율동주 문학관 및 청운문학도서관 방문
3.1.~9.20.	독서의 정석	812명	○ 경기독서종합지원시스템 독후활동 많이 쓴 학생 및 학급에게 선물 증정
9.5.~9.11.	9월 책읽기 좋은달	441명	○ 책 표지 보고 슈링크스, 독서빙고게임, 책속 보물찾 기, 북카페 이름 공모전, 도서 무료 배부
10.11.~10.27.	10월 팡팡! 미션임파서블	375명	○ 다트던지기, 대출증만들기, 도장판 미션 후 디폼블럭 또는 무드등 만들기, 신간도서 대출 후 뽐기
10.14.	모여라! 책벌레 리더스	9명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행사 참여 (10.14, 9명) ○ 책벌레 선배와의 대화, 김겨울 작가, 국립중앙 도서관 체험, 갈라쇼, 골든벨 등 참여
11.3.	작가와의 만남 - 광영직 작가 -	40명	○ 물리와 이공계열 관심 있는 학생들 모집 후 책 읽고 퀴즈, QnA, 사인회 등 진행
4.~6.	북피크닉	56명	○ 4~6월 친구끼리 책읽기(56명), ○ 그림책 활성화를 위해 운동장에서 그림책 읽기 (11.9~11.10, 87명, 272권)
11.23.	북트리대회	30명	○ 책을 이용하여 트리 만들고 참가팀 모두에게 선물 증정
1학기	책처방	57명	○ 고민을 듣고 책 소개 (1학기, 57명)
연 4회	글벗나래 영화상영	73명	○ 점심시간 영화 상영(4번, 73명)
상시	대출자에게 영광을	34명	○ 20권을 대출 한 학생에게 상품 받아가기 (34명)
상시	북크레이션	-	○ 인권, 학교폭력, 독서, 공부 등 주제도서 14권 전시 및 이벤트
1학기	책장가득 꿈만가득	95명	○ 금요일 아침방송을 통해 독서퀴즈 문제 맞추기 (1학기, 95명)

모든 행사는 도서관에 오게 하고 책 제목이라도 브라우징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질적 독서는 교과 수업으로 진행하고, 양적 독서는 도서관 행사로 진행 합니다. 도서부 또는 도서관 방문 학생들의 의견을 물어서 기획을 하고 행사를 많이 진행 하니 학생들은 서로서로 홍보하여 도서관에 자주 오게 되고 소소한 재미를 느껴 도서를 빌리는 대출 권수도 늘어나게 되고 책 읽는 학생도 많아졌습니다. 특히 수업시간에 책 읽는 것에 대해 불평 하는 학생이 많이 줄고 우리학교는 책 읽는 학교라는 인식이 자리 잡혔습니다. 행사를 진행 할 경우 방송부, 학생회, 인권, 폭력 등 학교 행사 연계로 같이 진행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년 이루어지는 작가와의 만남 2건은 학생들의 만족도가 아주 좋았으며 더 진행 해 달라고 요청을 많이 합니다.





## 활동내용 3

## 교육공동체 독서 역량 강화

### 1. 독서 동아리 독서 역량 강화

- <책사모>학부모 독서동아리 운영(12회, 96명)
- <책벌레>, <고전인문독서>, <영어 독서토론>, <책읽어주는 학생들> 자율독서동아리 운영(12차시, 389명)

### 2. 지역 연계 독서 역량 강화

- <책읽어주는 풍양이들> 재능기부로 진접도서관에 매달 한번 울동, 동화구연, 독후활동 진행
- <북아띠 연합독서교실> 주곡중과 함께 독서교실 운영
- <장성익 작가와의 만나> 진접도서관에서 주관하는 행사 참여

### 3. 2021년~2023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1318책벌레들의 도서관 점령기>운영 중

### 4. 교과에 필요한 도서는 성남교육도서관에서 지원 받음(3월~12월, 101권, 4,960명)

### 5. 미디어리터러시 감사 공모 후 운영(한국언론진흥재단)



## 함께 나누는 이야기

풍양중학교는 <책 읽는 학교> 지역 중심교로 학교독서교육 활성화 언론보도가 약 16건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재능기부건은 학부모들이 입소문을 통해 블로그로 홍보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2주간의 대출기간과 연체를 풀어 주어 학생들에게 대출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유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활용수업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서, 사무용품, 상품, 수업에 필요한 기기 등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그림과 낙서를 좋아하는 학생들을 위해 필기구와 이면지 등은 항상 준비해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도서관을 운영 하면서 독서와 운영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는 없습니다. “학생들이 독서를 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운영 방식을 많이 바꾸어 진행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선정되어 1층 본관에 정말 북 카페에 온 것 같은 <Book작 Book작> 무인 도서관 만들어 다양한 행사 및 소규모 수업, 대기 장소, 학부모 상담 등 책 공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사, 학생, 학부모 등 모두가 만족 해 하고 있습니다. 상품증정 또는 쿠폰을 담임 선생님에게 전달하여 학생들에게 지급되고 있는데 이것 또한 독서 홍보 및 독서 문화 조성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풍양중학교 글벗나래 도서관을 조용한 공간이 아닌 학생들을 위한 쉼터이면서 책을 읽으면서 담소도 나눌 수 있는 공간, 심심하면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성장하는 유기체이다’라는 도서관 제 5법칙처럼 정적인 아닌 동적이면서 학생들과 같이 성장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서 운영 하고 싶습니다.

- 풍양중학교 사서교사 김경주 -



# 생각이 크는 인문학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책은  
당신으로 하여금 가장 많이 생각하게 하는 책이다.  
- 마크 트웨인 -



## 생각이 크는 인문학

고양 문화초등학교

### 찾아가는 인문학 프로그램 연계 ‘ 영화 속에 피어난 꼬마 작가 ’

#### 기획 의도

‘영화 속에 피어난 꼬마 작가’ 프로젝트는 화가 장욱진의 삶과 작품들을 감상한 후 글쓰기 중심의 다양한 표현활동으로 예술의 장르를 변형시켜보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프로젝트 수업입니다. 장욱진의 작품은 아이들이 그린 듯한 느낌을 주는 그림이 많아 아이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영화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장욱진의 작품 속에는 가족, 새, 달 등과 같이 아이들이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것들이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장욱진의 그림을 보면서 아이들은 무한한 상상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글쓰기(이야기, 시 등)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글쓰기 작업과 함께 글에 어울리는 표현 방법을 익혀 작품집(학급 또는 개인) 출판 및 작품 전시회를 하는 것으로 프로젝트를 완성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 활동 중 하나로 찾아가는 인문학 프로그램과 연계한 작가와의 만남을 통하여 학생들은 글쓰기에 대한 직접적인 방법을 전문가에게 배울 수 있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책을 직접 출판한 작가와의 만남은 학생들에게 프로젝트 산출물인 책 출판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으며 이러한 기대감은 프로젝트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활동내용 1 작가 준비하기

- 독립 출판에 대하여 알아보고 오프라인, 온라인 책 출판과 관련된 다양한 에듀테크 도구 사용 방법을 익힙니다.
    - 하루북: 오프라인 책 출판 도구 ■ 북크리에이터: e-book 출판 도구 ■ 캔바: 디자인 편집 도구
  -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작가의 작업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작품을 좀더 깊이 있게 만나는 시간을 갖습니다.
    - ① 「지원이와 병관아」 시리즈의 고대영 작가와 함께하는 ‘일상의 이야기를 풀어 쓰는 글쓰기’
    - ② 「바삭 바삭 갈매기」의 전민걸 작가와 함께하는 ‘상상의 세계를 그림책을 펼치기’
    - ③ 「글자 동물원」 「오리 돌멩이 오리」의 이안 시인과 함께하는 ‘세상을 시인의 눈으로 바라보고 시의 언어로 이야기하기’
    - ④ 「우리 동네에 놀러 올래?」의 김민경 작가와 함께하는 ‘동화 속에서 찾은 나와 너, 그리고 우리들의 이야기 만들기’
- ※ 독서문화 플랫폼 ‘책씨앗’ (<https://www.bookseed.kr>)은 작가와의 만남 운영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작가 섭외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활동내용 2 나도 작가예요

○ 장욱진의 작품 세계를 다양한 방법으로 감상하는 것을 통해 다양한 글쓰기의 소재를 탐색합니다.

- ① 장욱진 관련 책 읽기 : 「새처럼 자유로운 화가 장욱진」 한솔교육
- ② 장욱진 관련 다큐 시청하기 : <영원한 자유인 화가 장욱진> 대전MBC 다큐
- ③ 장욱진 작품 감상 : 캔바 수업 폴더 활용
- ④ 장욱진 작품과 작품에 대한 생각 글쓰기

○ 장욱진의 작품을 보고 상상하여 짧은 이야기로 만들어 보는 활동을 합니다.

### 영화 속에 피어난 꼬마 작가 : 장욱진의 작품 변형하기 1

#### - 장욱진 작품을 보고 상상하여 이야기 쓰기(하루복)



○ 장욱진의 작품을 보고 상상하여 시를 써 보는 활동을 합니다.

### 영화 속에 피어난 꼬마 작가 : 장욱진의 작품 변형하기 2

#### - 장욱진 작품을 보고 상상하여 시 쓰기(하루복)



○ 장욱진의 작품 여러 장을 골라 마음껏 상상하여 그림책 한 권을 완성합니다.

### 영화 속에 피어난 꼬마 작가 : 장욱진의 작품 변형하기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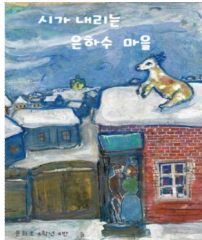
#### - 장욱진 작품을 보고 상상하여 그림책 만들기





### 활동내용 3 작품집 출판하기

- 장육진 작품을 활용한 시 쓰기 활동 결과물을 '북크리에이터'를 이용하여 e-book으로 출판합니다.
- 장육진 작품을 보고 상상하여 만든 그림책을 '북크리에이터'를 이용하여 e-book으로 출판합니다



시가 내리는 은하수 마을  
4학년 4반



할아버지의 행운  
이아인



무지개소  
강주미



까치의 모험  
4학년 4반 최재민

- 장육진 작품 글쓰기와 함께 생활 속에서 쓴 글을 모아 학급 작품집을 오프라인으로 출판하여 한 권의 책을 직접 출판하는 경험을 합니다.

#### 책 출판 하고 나도 작가되기 : 나도 작가예요 (학급문집 출판)

- 자신이 쓴 글 편집하여 오프라인 책 출판하기
- 하루복 '함께 쓰기' 기능을 이용하여 학급 문집 만들기
- 랜바, 스케치북 등 다양한 에듀테크 도구를 이용하여 페이지 편집



### 함께 나누는 이야기

자신의 활동 결과물들을 완성된 형태의 작품으로 만들어 보는 경험을 통해 아이들은 삶 속에서 예술 작품에 좀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직접 창작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아이들에게 예술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만날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아이들의 삶은 좀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글쓰기 활동은 그 활동 자체만으로도 학급에서 일 년을 끌고 갈 수 있는 프로젝트 수업이 될 수 있습니다. 교사가 특별한 글을 쓸 수 있는 수업을 별도로 구성하지 않더라도 아이들은 언제나 멋진 작가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삶에서 나오는 글이 진짜 살아 있는 글입니다. 아이들이 교실에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면 아이들은 시인이 되고 소설가가 되고 그림책 작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활동에 활용한 여러 에듀테크 도구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 시도하는 것이 어렵지 일단 시작하면 할 수 있고, 아이들이 더 빠르게 배우고 더 잘합니다. 다만 에듀테크 도구는 수업의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이 되어야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수업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 고양 문화초등학교 교사 고경애 -

## 생각이 크는 인문학

장성중학교

# 배움이 삶이 되는 ‘ 중3 전환기 인문학 프로그램 ’



### 기획 의도

본교는 고등학교 입학 앞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년말 교과 연계 인문학 강연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경쟁교육이 아닌 배움이 삶으로 연결되는 교육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성교육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대이기에 다양한 영역에서 삶을 통해 자연과 인간에게 선한 영향력을 구현하는 지역사회 인사들과의 만남을 통해 학생과 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사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생태적 교육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나를 넘어선 타인과 더불어 공존하기 위한 지혜와 협력의 소중함을 배우고 나누며 무엇을 하며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지를 충분히 상상할 수 있게 다양한 내용의 강연으로 학생들이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활동내용 1 기후 위기와 삶, 그리고 우리의 행동

- 강사: 배선영 환경운동가(녹색연합)
- 주제 1 : 기후 위기와 삶, 그리고 우리의 행동
  - 기후 위기에 따른 우리의 산에 나타나는 산불 등의 문제성 알아보기
  - 산림의 중요성과 산을 살리기 위해 해야 할 일, 기후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실천



### 활동내용 2 프레임에 갇힌 우리, 생각과 프레임

- 강사: 김진혁교수(한국예술종합학교)
- 주제: 프레임에 갇힌 우리, 생각과 프레임
  - 프레임은 우리들의 생각과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
  - 프레임에 갇힌 삶이 아닌 스스로 생각과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기가 왜 중요한가?



### 활동내용 3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우리 생각은 어디에서 오는가!

- 강사: 김찬호 교수(성공회대)
- 주제: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우리 생각은 어디에서 오는가!
  -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인공 지능을 마주 본다면?
  - 시각 정보의 과잉
  - 주의력은 인간 지성의 핵심이며 주의력을 통한 관찰과 발견의 즐거움은 창의성의 원천임을 이해.



### 활동내용 4 별에서 온 우리들, 별별 모양으로 살아가기

- 강사: 양희창센터장(간디공동체)
- 주제: 별에서 온 우리들, 별별 모양으로 살아가기
  - 다양하게 다른 학생들의 교육, 참된 교육의 지향성
  - 지구 속 별별 인간들은 각기 다른 소우주이나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음을 인식
  - 내가 살고 싶은 세상 그려보기, 배움은 깨달음으로 가는 삶의 여행임을 공유



### 활동내용 5 나만의 달란트를 찾아서

- 강사: 조영선변호사(민주사회를 변호사 모임)
- 주제 : 나만의 달란트를 찾아서
  - 달란트의 의미, 다양한 직업과 미래 직업 살펴보기, 강연자의 직업과 삶 엿보기
  - 내가 하고 싶은 것,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 무엇을 할 때 가슴이 뛸까? 에 대해 생각해보고 미래 진로를 구상해보기



### 활동내용 6 삶으로 만나고 실천하는 세계적 민주시민성에 관하여

- 강사: 홍세화작가(장발장 은행)
- 주제: 삶으로 만나고 실천하는 세계적 민주시민성에 관하여
  - 인간성(차이와 이별), 민주 시민성(민주공화국), 세계 시민성의 기본요건(인종적 편견에서 벗어날 것, 성차별주의(남성우월주의)에서 벗어날 것, 성소수자 차별, 혐오, 억압, 배제에서 벗어나기)



## 활동내용 7 야생초로 깨달은 생태주의적 세계관

- 강사: 황대권 작가(생명평화마을)
- 주제: 야생초로 깨달은 생태주의적 세계관
  - 생태적 삶을 지향하는 교육 실천이 필요함.
  - 꽃과 화초는 자연과 인간의 삶을 연결하는 매개체, 일상을 자연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야 함.



### 함께 나누는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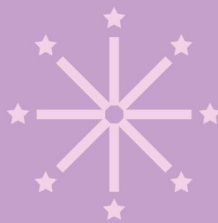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만 학습하던 것을 사회적 전문가들을 통해 직접 다양한 분야의 관점에서 사회적 문제와 인문학적 사고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학생들이 좀 더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고와 소통의 시간이 되었던 열린 교육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학생들이기에 좀 더 미래 진로와 삶에 대한 고민이 많았을 텐데 아이들의 소감 발표를 통해 배워가고 느끼는 바가 컸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학생들에게 인문학적인 소통과 나눔을 통해 인간 존중 문화의 필요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성, 민주시민성의 함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기회였으며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에 대한 고민의 기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 장성중학교 교사 고수경 -







# 세상과 소통하는 글쓰기

좋은 책을 읽는다는 것은  
과거의 가장 훌륭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다.  
- 데카르트 -



## 세상과 소통하는 글쓰기

감일백제중학교

# ‘글로 표현하는 나의 세상’ 경험해 봐. 무슨 일이 일어날까?



### 기획 의도

“매일 글을 써라.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

-레이 더글러스 브래드버리(Ray Douglas Bradbury)

발등에 화상을 입은 적이 있다. 우습게도 방바닥에서 자다가 당한 일이었다. 얼마나 둔하면 살이 타들어 가는 줄도 모를까?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탄식 아닌 탄식을 하니 의사가 이렇게 말했다.

“서서히 익어 가는데.... 모르죠. 이렇게 돼서 오는 환자가 의외로 많아요.”

나도 모르게 서서히 일어나는 일에 당할 장사가 없다는 뜻이다. 학생들에게 글을 쓰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에게 계절 변화듯 불쑥 찾아오는 것들에 당하지 말고 의식을 깨워 살아보자는 것이다. 생각은 보이지 않아서 정리하여 남기지 않으면 곧바로 사라진다. 나에게 찾아오는 기쁨의 순간, 깨달음의 순간, 후회의 순간, 분노의 순간, 떠오르는 창의와 상상의 순간을 한순간의 물보라처럼 흘려보내지 말고 차분히 정리하여 남겨 놓는 것. 그것이 글쓰기이고 글쓰기의 힘이다.

‘학생책쓰기 지역중심교 사업’을 알게 되었을 때 놀랍고 반가운 마음에 부리나케 신청했었다.

‘학생책쓰기’란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책 읽기, 토론, 서평 쓰기 등의 활동을 통해 학생 스스로 글쓰기·책 출간(디지털 기반 전자책 포함) 등 일련의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1인 작가가 되어보고 평생독자로서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이다.

한 권의 책을 쓰는 경험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에게 깊이 있는 사고와 글쓰기 역량을 키워 준다. 이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이다. 학생 스스로 주도하고 그들이 주인공이 되어 해결해 나갈 수 밖에 없다. 그 일을 모두 마치고 자신의 책을 가슴에 품었을 때 학생들이 느낄 자신감과 뿌듯함을 생각하며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두려움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학생들에게 브래드버리처럼 묻는다.

“얘들아, 1년 동안 글을 써 보자.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까?”

### 활동내용 1 이야기의 소재 찾기

학생들은 자신의 삶에서 이야기의 소재를 찾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결정한다. 때로는 허구적 이야기로 현실이 상상과 닿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말보다 더 강력한 그림으로 마음을 표현하기도 한다. 어떤 학생은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를 소개하는 글을 쓰기도 했는데 간혹 내용이 깊어 나를 놀라게 하는 학생도 있었다.

글쓰기는 읽기와 관찰로부터 시작한다. 학생들은 자신의 관심과 흥미에 따른 진로 분야를 탐색하고 관련 도서를 탐독하는 진로 독서 활동을 통해 책 쓰기의 소재를 찾고 주인공 설계를 위한 자료를 수집한다. 기성 작가들도 처녀작으로 자전적 이야기를 내놓는 경우가 많다. 작가로서의 경험을 처음 해보는 학생들이기에 자기 자신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모르는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완성을 위해서는 훨씬 유리하다.

## 활동내용 2 기본 구조 설계하기

학생들은 이야기의 기본 구조 설계 단계에서 첫 번째 고비를 만난다. 소설을 쓰는 학생들은 '번호 붙여 구성하기'라는 방식으로 구조를 설계한다. 자신이 쓰고자 하는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 후 사건의 흐름에 따라 10개의 사건을 번호 붙여 구성한다. 꼭 10개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략 10개 정도의 기본 구조가 만들어지면 책으로 출간할 수 있을 정도의 분량을 쓰는 기반이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기본 구조에 한 개의 번호 당 원고지 5매 정도의 분량으로 이야기를 확장하는데 이때 서사, 대화, 묘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이야기를 구체화한다.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글을 시작하는 것과 끝내는 것이다. '번호 붙여 구성하기'를 통해 이야기의 기본 골격을 만들어 놓으면 시작과 끝이 훨씬 쉬워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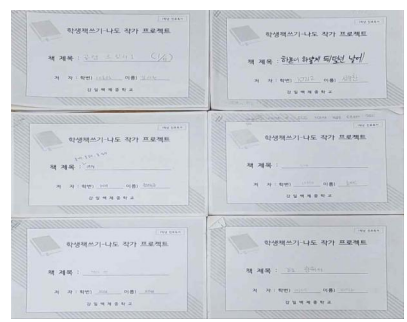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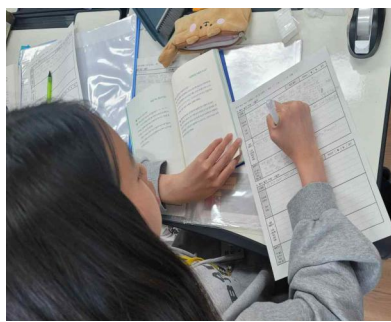
그림책을 만드는 학생들은 '스토리보드 만들기'로 구조를 설계한다. 이 방법 역시 처음부터 끝까지 대강의 내용과 그림을 만들어 놓고 그림책을 만들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을 줄일 수 있고 이야기의 완성도를 확보할 수 있다.

과학이나 음악 에세이 분야는 기획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마찬가지로 대강의 전체 내용을 구성해 놓고 '확장하기' 단계를 거치게 하였다. 그림책이나 에세이도 소설과 마찬가지로 구체화와 상호피드백 과정에서 고쳐쓰기가 이루어진다.

## 활동내용 3 이야기 쓰기

초안은 원고지에 작성하도록 하였다. '원고지가 뭐예요?'라고 묻는 학생도 있었다. 학생들은 원고지에 글을 쓴다는 것에 놀랐고, 나는 원고지를 모르는 학생들 때문에 놀랐다. 시대에 안 맞게 고루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원고지 사용은 장점이 많다. 이야기의 각 단계를 균형 있게 전개하면서 스스로 분량을 확인하는 데 원고지 만한 도구가 없다. 부수적으로 학생들에게 맞춤법을 익힐 수 있게 하고 손의 힘을 길러 준다. 원고 작성이 끝나면 학생들은 한글 워드 작업을 한다. 이 과정에서 한 번 더 고쳐쓰기를 하며 글의 완성도를 높인다. 학생들은 원고를 중간중간 공유 사이트에 게시하고 상호 피드백 과정을 거쳐 예비독자의 의견을 반영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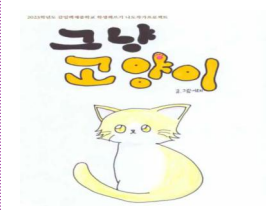
100편에 가까운 작품을 완성하게 한 비법이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아마도 책쓰기를 위한 읽기에서부터 마지막 성찰에 이르기까지 단계적 차시 운영을 하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준 것 때문일 거라고 말할 수 있겠다.



## 활동내용 4 책 출판하기

학생책쓰기의 꽃은 출간된 책을 전시하고 작품 소개 및 프로그램 참여 과정과 소감을 나누는 출판 기념회일 것이다. 도서관에 출간한 모든 작품을 전시하고 학생은 물론 학부모와 교사들이 오가며 학생들의 작품을 읽을 수 있게 했다. 전시회에서 학생의 작품을 접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놀라워한다. 특히 2, 3학년 학생들은 놀라움과 부러움을 동시에 드러내며 자신들에게도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예산과 교육과정 운영 한계 등의 문제 때문에 1학년만을 대상으로 책쓰기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못내 아쉬운 순간이었다. 출판기념회에서 발표한 학생들은 하나같이 이번 책쓰기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자신이 성장하였으며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날 현장에 있었던 교사, 학생, 학부모들은 연신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자랑스러운 학생들을 온 맘 다해 축하해 주었다.

학생책쓰기 프로젝트는 학생들에게 의사소통역량과 창의적 사고역량, 자기주도성을 키워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세계를 표현하고 1인 작가가 되어봄으로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남겼다.



## 함께 나누는 이야기

학기 초, 학생책쓰기 프로젝트를 소개할 때 잘못 들은 줄로만 알았다는 한 학생은 마무리 소감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처음에 책을 쓰기 시작할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 막막한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책의 절반 정도를 작성하고 나니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쓰는 재미를 알게 되었고 글을 쓰는 실력도 늘었습니다. 덕분에 미친 듯이 글을 써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구마구 글을 쓰다 보니 어느새 작품이 완성되었습니다. 원고를 제출하고 나서 책이 나오기를 기다릴 때 정말 날아갈 것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내가 책을 썼다는 자랑스러움과 창작의 고통을 겪어냈다는 사실이 행복했습니다.”

‘고통을 견뎌낸 행복’, 1년 안에 이런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교육활동이 얼마나 될까? ‘학생책쓰기 지역중심교 사업’이 저물어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의미 있는 것을 의미 있게 다룬 교육적 가치가 무궁한 사업이다. 이 사업이 지속되기를 바란다.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계속 참여하고 싶다고 말하는, 이제 겨우 글쓰기의 참맛을 알게 된 아이들의 소망이다.

- 감일백제중학교 수석교사 김시봉 -



## 세상과 소통하는 글쓰기

포천고등학교

# ‘포천고 학생 작가들’ 학교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다.

### 기획 의도

수많은 전자기기 속에서 독서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간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책을 읽는 시간이 가장 힘들고 재미없다고 합니다. 그나마 독서 활동을 수행평가 점수에 반영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정말 책을 읽지 않을지도 모르겠네요. 이렇게 책과 점점 멀어지는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책과 더 친해지게 할 수 있을까? 국어교사로서 늘 가슴에 품고 있는 화두였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이 책의 주인공이 되어보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이미 그들만의 삶의 궤적, 커리어 쌓인 지식의 나이트를 품고 있으니까요. 너희들도 책의 저자가 될 수 있어. 그래서 너희만의 경험과 지식을 다른 독자들과 공유할 수 있어. 근사하지 않아? 어떤 아이들에게는 학창 시절의 작은 경험이 삶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책쓰기가 아이들의 삶에 긍정적인 나비효과를 일으키길 기대하며, ‘포천고 학생 책쓰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 활동내용 1 애들아! 책 쓰기 하자~

책쓰기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시작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모객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세상에서 가장 바쁜 존재들이 아닐까 합니다. 수행평가, 지필평가, 각종 교내 활동들 게다가 방과후에는 학원까지... 이렇게 바쁘신 분들 중 작가가 되실 분들을 모셔야 하는데 소홀할 수는 없는 법! 일단 귀여워야 해. 귀여워야 한 번이라도 더 봐주지 않을까? 고양이의 힘을 빌렸습니다. 전단지 알바생이 된 양, 무작정 각반 교실에 포스터를 붙였습니다. 다행히도 고양이가 12분의 작가님들을 데려와주었습니다.



### 활동내용 2 책쓰기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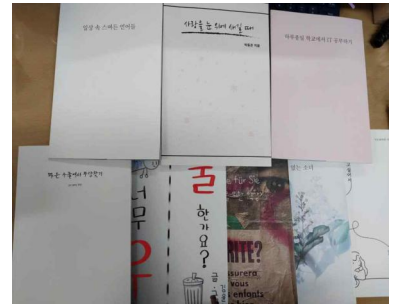
스케줄이 빡빡한 고등학생 작가님들이 어떻게하면 집필에만 집중하실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글이란 건 그렇잖아요? 써야지 써야지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게되고... 하지만 영감이 떠오르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밤새서라도 쓸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러다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합숙! 아이돌 가수들이 합숙하며 집중적으로 앨범을 준비하듯, 우리 아이들도 집필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준다면 훨씬 좋은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작가님들과 함께 책쓰기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작가님들은 정말 잠도 안주무시고 책을 계속 쓰시더라는... 한 번 쓰면 멈출 수 없었다고 합니다.

## 활동내용 3

## 세상으로 나온 책들

헉! 뭔가 오래 걸리는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짜잔!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하는 요리프로 같긴 하지만,,, 지지고 볶고 창작의 고통에 허우적대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 포천고 작가님들의 책이 나왔습니다.

주제는 다양했습니다. 판타지 스릴러 소설 '마른 하늘에서 무당 찾기', 패션 산업에 종사하는 것이 꿈인 친구가 쓴 '당신을 위한 색상' 등... 장르와 소재도 다양한 책이 세상이 나왔습니다.



## 활동내용 4

## 북토크가 있는 출판기념회



거창하게는 아니더라도, 학생 작가님들이 쓴 책과 그 책을 쓴 과정 과정 중에 든 생각들을 다른 친구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학교 도서관에서 작가님들과의 북토크 형식으로 출판기념회를 진행했습니다. 책을 출간한 작가님들께 자신이 쓴 책의 구절 중 가장 인상적인 구절을 낭독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작가님들의 낭독을 듣고 책을 쓴 과정과 그에 얹힌 소중한 이야기들을 듣는 시간은 따뜻했습니다. 준비한 차를 한잔씩 마시며, 이런 훈훈함을 느끼기 위해 그동안 애썼구나 싶어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를 보내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 함께 나누는 이야기

학생들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경험은 다양합니다. 그 경험들이 모여 학생 한 명 한 명을 성장시킵니다. 그 중 '학생 책쓰기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자신의 책을 쓰고 그 책을 손에 쥐어보는 경험은 학생의 인생을 바꿀만한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2022년에 참여하고 또다시 2023년에 참여한 학생들이 많은 것을 봐도 그렇습니다. 글을 쓰는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책이 나오고 그 책을 통해 친구들과 소통하는 경험을 해보니 어느새 또 프로젝트 신청을 하고 있더라입니다.

하지만 이 경험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저는 책쓰기 프로젝트가 개인의 경험을 넘어 교육 공동체의 변화를 일으키기를 소망합니다. 친구가 쓴 책을 읽고 '나도 이 친구처럼 책을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학생들이 많아질 때, 그리고 한 권의 책을 쓰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책과 더 친해지고 자신의 관심사에 관한 다양한 책을 스스로 찾아 읽을 수 있을 때, 나아가 학생들의 책에 기술된 교육 문제나 지역사회 공동체의 문제들이 널리 공유되어 확장될 때, 그 때까지 학생 작가님들과 책쓰기를 멈추지 않고 싶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는 저 또한 책쓰기 프로젝트에 단단히 빠졌나 봅니다.

- 포천고등학교 교사 김혜영 -



# 예술-독서 융합 프로젝트

예술은 우리의 상상력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공간이다.

- 알버트 아이슈타인 -



## 예술-독서 융합 프로젝트

서경초등학교

# '도서관 옆 미술관 프로젝트'



### 기획 의도

많은 사람들이 책이나 미술 전시회를 통해 미술 작품들을 만나지만, 작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어려워합니다. 미술 작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거나 감상하는 기회를 제대로 가져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미술 작품에는 미술가의 삶이나 생각, 이야기, 시대적 상황 등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 학생 때부터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하는 경험을 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예술과 함께 하는 다채롭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교육이 문학 작품에 주로 치중되어 있지만, 학교도서관은 다양한 교과의 교수·학습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훌륭한 자원들을 가지고 있으며 즉각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에 학생들의 미술 작품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감상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서경초등학교 도서관과 4학년 교사들이 함께 **학교도서관 협력수업 '도서관 옆 미술관 프로젝트'**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활동내용 1 사전 준비

- 먼저 사서교사와 4학년 교사들이 협의하여 **총 6차시의 학교도서관 협력 수업**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수업 내용을 결정하였으며 교사 간 역할을 적절하게 나누었습니다.
- 다음으로 교과서를 분석하여 미술 감상에 필요한 국내외 명화 15점을 선정하였습니다. 도서관 앞 벽에 레일을 설치하여 **명화를 전시**하고, 관련 **명화집과 미술가 인물전**을 프로젝트 전에 미리 **구입**해서 준비해 놓았습니다.



#### \*명화집 및 미술가 인물전 목록\*

「Little 명화 갤러리」 시리즈, 삼성출판사  
「세계인이 사랑한 불멸의 화가」 시리즈, 봄이아트북스  
「공부가 되는 한국 명화」, 아름다운사람들  
「내가 처음 만난 예술가」 시리즈, 길벗어린이  
「모두의 예술가」 시리즈, 책읽는곰  
「겉작의 탄생」 시리즈, 국민서관  
「김홍도 갤러리」, 「신윤복 갤러리」,  
「신사임당 갤러리」, 그린북 등

#### 명화 전시 목록

단오풍정(신윤복)/씨름(김홍도)/초충도(신사임당)/  
흰 소(이중섭) / 피아노 치는 소녀들(르누아르)  
키스(클림트)/왕의 슬픔(마티스) /  
아를의 반 고흐의 방(고흐)  
진주 귀고리를 한 소녀(페르메이르)  
모나리자(레오나르도 다빈치)  
귀가 잘린 자화상(고흐) / 피리 부는 소년(마네)  
사과 바구니(세잔)/수련(모네)  
그랑드자트섬의 일요일 오후(쇠라)



## 활동내용 2 협력수업 하기

- 본 프로젝트는 크게 '미술 작품 감상하기 → 미술 관련 책 읽기 → 미술가와 미술 작품 조사하기 → 조사 결과 표현하기 → 소개하기'로 구성하였으며,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차시 담임교사	2~3차시 사서교사	4~5차시 담임교사+사서교사	6차시 담임교사
-미술 작품 관람하기 -인상적인 작품 고르기 -느낌과 생각 쓰기	-영화집, 인물전 보기 -미술가와 작품 조사하기 -작품 이야기 상상하기	-조사 내용 업사이클링 팝업북으로 표현하기 -작품 소개 자료 작성	-도슨트 활동하기 (미술 작품 소개) -소감 나누기

### <차시별 활동 내용>

- 1차시에는 담임교사의 지도하에 **전시를 관람**하고, 그중 가장 **마음에 든 작품 3점**을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작품을 볼 때는 천천히, 멀리, 가까이, 여러 각도에서 보도록 하였으며, 가장 마음에 든 작품을 고르고 작품에서 보이는 것, 색과 분위기, 마음에 든 이유 등을 **학습지에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시간이 충분하다면 전시를 보기 전에 「어린이를 위한 미술관 안내서」(논장)를 아이들과 함께 읽어보면 좋습니다.
- 2~3차시는 사서교사의 주도로 **영화집과 미술가 인물전을 읽고 작품과 인물에 대해 조사**하는 시간입니다. 학생들이 조사할 미술 작품은 1차시에 작성한 학습지를 바탕으로 미리 선정해두었습니다. 학생들은 미술가와 작품의 기본 정보 및 배경 등을 조사하여 학습지에 작성한 후 **그림에 얹힌 이야기를 상상하여 글쓰기**를 하였습니다. 2~3차시에 담임교사가 수업에 함께 한다면, 학생들의 조사 활동을 더 꼼꼼하게 지도해줄 수 있습니다.
- 4~5차시는 **조사한 내용을 새로운 작품으로 표현**하는 시간으로 사서교사와 담임교사가 함께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물 표현 활동은 폐기 그림책을 가치 있게 재탄생시키는 활동인 '**업사이클링 팝업북 만들기**'로 미술 과목과 학교도서관 협력이라는 특징을 잘 살렸습니다. 이때 사서교사는 팝업북 만드는 방법을, 담임교사는 전체적인 진행과 함께 작품 소개 자료 작성을 지도하였습니다.
- 6차시에는 학생들이 직접 도슨트가 되어 번갈아 가며 **친구에게 미술 작품을 소개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작성한 소개 자료를 업사이클링 팝업북 뒤에 붙이면, 친구에게 작품을 보여주면서 편하게 작품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미술 작품 관람>



<인상적인 작품 고르기>



<미술 작품과 미술가 조사>



<업사이클링 팝업북 작품>



<도슨트 활동하기>

### 활동내용 3 사후 활동

- 도서관 옆 미술관 프로젝트는 전체 공유 활동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조사한 내용과 그림을 넣어 만든 **업사이클링 팝업북을 명화와 함께 전시**하여 전교생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전시된 명화와 함께 작품 관련 정보와 이야기가 담긴 업사이클링 팝업북을 함께 보며 미술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업사이클링 팝업북 전시>

### 활동내용 4 도서관 옆 미술관의 다양한 활동



### 함께 나누는 이야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이 미술 작품을 학교 내에서 감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미술과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전시된 명화를 보며 미술관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는데 정말 멋지다, 도서관 옆 미술관이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다, 미술 작품에 대해 알게 되어 미술에 흥미가 생겼다 등의 소감을 남겨주었습니다. 또 수업이 끝난 후 진행한 업사이클링 팝업북 전시는 학생들이 자랑스러움과 성취감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4학년 담임교사들에게도 미술 작품을 직접 활용한 양질의 수업, 학교도서관 협력으로 부담을 줄이는 알찬 탐구 수업, 책을 통해 조사하는 활동을 이어서 하는 체계성을 높인 수업, 학생 개별 특성과 수준에 맞추고 꼼꼼하게 피드백을 해줄 수 있었던 보람 있는 수업이 되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학기 말에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수업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점입니다. 만약 선생님의 학교에서 미술 감상과 이해에 관련된 수업, 책과 인터넷으로 조사 학습이 필요한 활동을 하신다면, 학생들이 책을 읽는 시간을 충분히 편성하시기를 바랍니다.

- 서경초등학교 염광미(사서교사)-이은순(담임교사) -



## 예술-독서 융합 프로젝트

금릉초등학교

초 · 중 · 고 연계

# '예술-독서 융합 도 · 레 · 미 프로젝트'

### 기획 의도

도레미 프로젝트는 초등학교 교사, 중학교 고등학교 예술 교사가 모여 학교를 연계할 수 있는 예술 융합 수업 모델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이것을 현장에 적용하여 발전시켜 새로운 예술 융합수업 모델을 만들기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저희 선생님들은 초-중-고의 교육과정 및 특성들을 공유하며 많은 시간 이 프로젝트를 위해 연구해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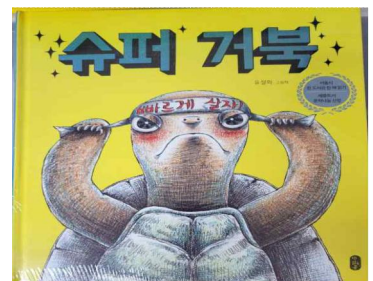
초-중-고 연계활동의 새로운 **도전!** 지역사회 선후배와의 **릴레이**션, 관계! 또 이러한 예술융합활동에 에듀테크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미래**예술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도레미 프로젝트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 활동내용 1 초-중-고 연계활동의 새로운 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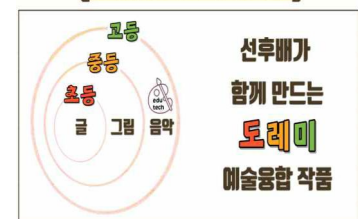
어렸을 때 재미있는 책을 읽고 나면 '주인공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을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슈퍼 거북'의 작가도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이후의 거북이의 삶에 대해 재치 있게 풀어갑니다. 어른이 된 저도 그 책을 읽고 내 삶과 비교하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업을 하다보면 아이들은 어른들의 생각으로는 꾸밀 수 없는 상상의 세계를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아이들은 상상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자신감 있어 합니다. 정해진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도레미 프로젝트의 시작은 '이렇게 상상하여 쓴 글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여 그림과 음악으로 나타내보면 어떨까?' 하는 새로운 상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글을 쓰고, 이것을 중학교에 전달하여 그림으로 나타내고, 또 글과 그림을 모아 고등학교에 전달하여 음악으로 나타내면 각각의 다른 작품이지만 하나의 큰 같은 작품이 되는 지역연계 예술작품의 탄생을 기대하였습니다.



#### [ 도레미 프로젝트 활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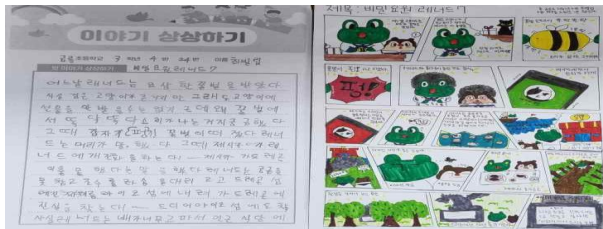
## 활동내용 2

### 지역사회 선후배와의 릴레이션, 관계!

초등학교에서는 동화책 뒷이야기 상상하여 글쓰기와 마음을 나타내는 글쓰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슈퍼 거북'과 '슈퍼 토끼'를 친구들과 함께 읽고, 자신이 재미있게 읽은 책을 멘티미터를 활용하여 친구들에게 추천해 주었습니다. 친구들이 추천한 책 중에서 한 권을 골라 읽고 뒷이야기를 상상하여 글쓰기 활동을 하였습니다. 마음을 나타내는 글쓰기 활동은 다양한 감정의 표현 방법을 배운 뒤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며 그 때의 상황에서 나의 마음이 어땠는지 글로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쓴 글은 중학교에 전달되어 초등학생 작품과 연계하여 그림 그리기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림은 학생들이 글을 읽고 떠오르는 장면을 자유롭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림의 형식도 학생들이 표현하고 싶은대로 일러스트, 4컷 만화, 웹툰 등 다양하며 animated drawing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작품이 모여져 고등학교에 전달되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글과 그림에 어울리는 음악을 창작하였습니다. 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글을 쓴 초등학생 꼬마 작가들과 그 글을 선택한 고등학생 친구들이 인터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글을 쓸 때 생각했던 내용과 어울리는 음악 스타일을 상의하며 함께 작품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초등학교-중학교 연계작품



고등학교 음악 창작 활동

## 활동내용 3

### 에듀테크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미래예술교육을 실천!

프로젝트의 마지막 음악 작품은 직접 작곡을 하여 창작한 학생들도 있고, 뮤직 랩 송메이커, 사운드로우, 밴드랩, 에프터이펙트 등 다양한 인공지능 음악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작곡하였습니다. 이렇게 만든 음악과 그동안의 과정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온라인에서 사레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참여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및 학부모님과 관심 있는 선생님들을 초대하여 함께 작품을 감상하고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 함께 나누는 이야기

선배들이 작품을 고를 때 기준이 참 특별했습니다. 어른의 기준으로는 소위 '잘 된 작품'이 아니었는데 맞춤법이 다 틀려서 재밌다고 고르거나, 자신의 어렸을 때 모습이 생각나서 골랐다고 합니다. 덕분에 교실에서 글쓰기에 자신 없어 하는 친구도, 글씨가 삐뚤빼뚤한 친구도 선배들의 선택을 받아 멋진 작품으로 탄생하였습니다. 한 번도 글 잘 쓴다고 칭찬 받아보지 못했을 친구들도 자신의 작품이 선정되어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느낀 것은 사람만이 줄 수 있는 따뜻함이었습니다. 함께 작품을 만들고 공유하면서 협력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이 배운 것은 교과서에서 배우는 어떤 지식보다 소중한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소중한 경험들이 저희 도레미 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만들어지길 소망합니다.

- 금릉초등학교 교사 조예지 -